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8. 23	08. 30	09. 06
대 표 기 도	윤미경 자매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독	윤미경 자매	정해욱 형제	김정규 형제

교회소식

8월의 축복 인사 : 주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는 8월 되세요!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선교 훈련(초기 7교회, 바울사도 1차 전도지) - 27년 3월 9일~16일(7박8일, 튀르키예) 신청-9월27일(주일)까지. 최상우 청년회 회장께
4. 다음 주일(23일)에는 이찬희 목사님(함부르크 한인교회 담임)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5.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류현석 형제 정웅현 안수집사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단기선교	
합계(Euro)	
온라인헌금(7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569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예준 형제
성경봉독 Predigttext	시 23 : 1 - 6(구p 818) (Pslam 23:1~6)	이예준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목자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아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를 위해
2.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진로, 결혼)
3.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황희순 집사님)
4. 2027년 3월 중에 있을 선교훈련을 위하여
5.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목자

시편 23편 1-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된 안식의 목자이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영혼이 지치고 낙심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함께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보여줍니다.

1. 목자는 지친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쳐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의 회복은 자신의 결심이나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2. 목자는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우리도 인생의 모든 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한꺼번에 보여주시기보다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3. 목자는 골짜기에서도 함께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는 말씀이 시편 23편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골짜기를 걸으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안식은 환경이나 장소에 있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친 영혼은 주님께 나아가 회복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나는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며, 그곳에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2. 나는 힘들고 지칠 때 어디에서 안식을 찾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내가 찾는 세상의 안식은 어떻게 다른가?